



# 뉴스 레터

저자: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2015년 12월 31일자

##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사업 2단계 연구추진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 중인 생물권보전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공동연구사업이 현재 2단계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부터 이어온 연구사업은 5곳의 대표 연구구역 제주 BR (동중국해), 마카비/벨룸브 BR (인도양), 메노르카 BR (지중해), 세인트마리 BR(카리브해), 프린시페섬 BR (대서양)의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영향



사례 문헌조사를 통해 취약점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2단계 연구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1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각 연구지역의 현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방안 분석
- 기후변화에 대한 보호지역 보호전략 분석
- 각 연구지역의 생태계 취약성 극복방안 분석

이번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지난 10월 27~29일 기간 동안 프랑스 뽀르크홀르 (Porquerolles)섬에서 개최한 국제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표는 책임연구원인 정대연 교수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기후변화 접근방법”과,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 2가지 주제로 하였으며, 각 연구지역의 현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방안 분석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 대한 최종 중간보고서는 2016년 6월말에 마무리되어 7월 말에 책자로 발간된다.

## 제3차 세계 섬·연안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 실시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이하 ‘관리자교육’이라 칭함)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지역’이라 칭함)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사업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교육 참가자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우선선발기준을 통해 총 6개국 6개 BR지역을 선발하였다.

### < 우선 선발 기준 >

- 2013년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 ODA(공적개발원조) 수원국
- 그동안 WNICBR의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
- 국가대특별 분배, 동일 조건인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

선발지역은 Kogelberg BR (남아공), Sikhote Alin BR (러시아), Palawan BR (필리핀), Dublin Bay BR (아일랜드), North Vidzeme BR (라트비아), Planning Team for a Guide to BR (이스라엘)이며, 각 지역 대표 관리자 1명씩 초청되어 교육에 참가하였다.

이번 관리자교육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유네스코

MAB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그리고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주관으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제주도 BR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사회변화’, ‘MAB 및 BR지역 관리·운영 현황’ 등에 관한 강의와 더불어 참가BR지역의 사례 발표, 친환경에너지 현장실습,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교육 참가자들은 매우 유익한 정보공유를 하고 제주도 관리시스템에 대해 깊은 감회를 얻음과 더불어 각자의 관리지역에 대한 좋은 동기부여와 아이디어를 얻었다.



교육 참가자들은 교육을 마친 후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종합한 프로시딩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자료집은

<http://wnicbr.jeju.go.kr/index.php/eng/resources/sourcebook>

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 제14차 동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EABRN) 총회 개최



1994년 동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EABRN) 설립 후, 회원 지역의 관리자 역량강화와 협력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해 14차 회의를 지난 2015년 10월 6-9일까지 일본 나가노현 시

가고원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EABRN 사무국을 총괄하고 있는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대표 Hans Thulstrup를 비롯하여, 2004년부터 신탁기금 지원을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AB 한국위원회, 그리고 그 밖의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에서 MAB위원회 혹은 BR지역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협력구역에서의 활동과 지역협의체의 BR지역 운영”의 주제로 각 참석 지역 대표자들이 전이지역에서의 주요활동들에 대해 발표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EABRN 사무국 보고와 EABRN 설립 20년 평가, 그리고 EABRN 규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향후 10년간의 MAB 전략 및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차기 리마행동계획 (2016-2025) 의 제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은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브랜드 활용 등 제주도 전이지역에서의 주요활동을 소개함과 더불어, 지역 네트워크인 EABRN 회의에서 주제별 네트워크인 세계 삼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WNICBR) 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다가오는 제4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총회에서 논의 및 확정되는 차기 리마행동계획 (2016-2025)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 EABRN 네트워크와 WNICBR 네트워크의 상호 협력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제9차 동남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SeaBRnet) 회의 개최



1998년 동남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SeaBRnet) 설립 후, 2002년부터 일본 정부의 기금지원을 받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들의 역량 형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도모

하기 위해 제9차 회의를 지난 2015년 10월 28-30일까지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와 MAB인도네시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태국, 미얀마, 베트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회원국에서 MAB위원회 혹은 BR지역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참석 회원지역 대표들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활동을 발표하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관리상의 개선사항 등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호, 회복, 생태계 지속가능이용 홍보, 지속적인 삼림관리, 사막화 방지, 보전지역 침하방지, 생물종다양성 손실방지 등 15가지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리마총회 때 논의 되어질 행동계획이 마드리드 행동계획

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SeaBRnet 미래전망을 위한 전략 토론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원탁의자에 앉아 한명씩 순서대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Fish Ball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리마총회 세션운영방안과 브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는 지방정부, 과학자, 관리자 중심에서 글로벌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하고,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통해 각 생물권보전지역의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함에 뜻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브랜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EABRN과 더불어, SeaBRnet도 WNICBR 네트워크의 상호 협력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5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사례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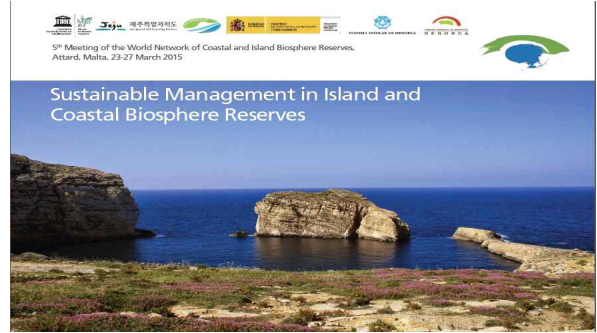
지난 2015년 3월 24일부터 26일에 몰타 아타르드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에 관한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이번 제5차 회의 사례집은 대한민국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회의 발표자들의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 및 인쇄 제본 작업을 거쳐 영어와 한국어(e-book)로 각각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되새겨보고, 서로간에 정보공유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발간된 사례집 책자는 유네스코 본부로 보내지며, 전자책은 제

주사무국 홈페이지 및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제5차 회의사례집 표지 사진)

- BR지역 관련 훈련과 교류프로그램 개발
- 양 BR지역 공동 홍보
- 기술과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협력
- 환경관련 연구 프로젝트 및 기타 상호 인정되는 활동 수행
- BR지역 생산품의 브랜드화 협력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BR지역간 네트워크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BR지역의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팔라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 BR지역 자매결연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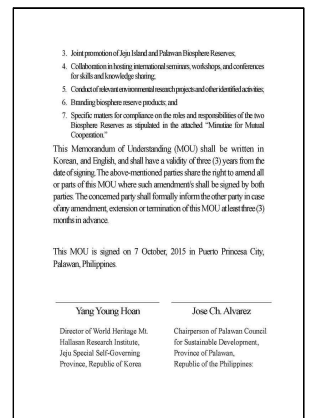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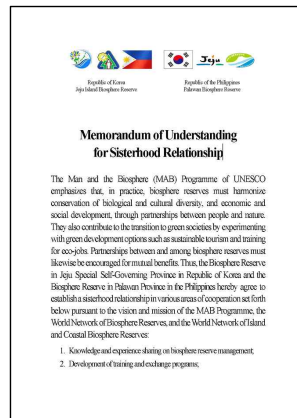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지역)중에서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유사한 필리핀 팔라완과의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7일에 필리핀 팔라완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체결

식에는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이 제주도 BR 대표로 루이스 마카이다 팔라완 부시장인 팔라완지속가능발전협의회(PCSD, 팔라완 BR) 대표로 참석하였다.

체결식은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대표 관계자 면담과 양 기관의 BR지역 관리현황 발표,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로 이루어졌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제주도 BR과 팔라완 BR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력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BR지역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유



## 국내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홍보



국내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지역)에서는 BR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로고를 특허출원하고 로고를 부착한 지역 상품들을 선별하여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에 BR지역 로고를 특허출원하여 현재 18개 업체 48개 제품을 선정하여 로고 부착 포장재 제작 등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사업 현황 및 성공사례를 견학하고 브랜드

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10-12일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을 방문하여 워크숍을 추진하고, 지자체간 벤치마킹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은 전이지역의 중요성과 활용을

요구하는 세미야 전략 수립 이전에 지정된 곳 이어서, 구역설정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번 견학을 통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활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역산업연계가 필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